

01

감염병 정보(바이러스 간염-A·E형간염)

	A형간염	E형간염
정의	· 바이러스가 장관을 통과해 혈액으로 진입 후 간세포 안에서 증식하여 염증을 일으키는 간질환이다.	
주요증상	· 발열, 피로감, 식욕감소, 구역질, 구토, 복통, 황달, 근육통, 어두운 색 소변 등	
진단	· 검체(혈액)에서 특이 IgM항체 검출 · 검체(혈액, 대변, 직장도말)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	
전파경로	· 분변-구강 경로로 직접 전파 ·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이나 음식물 접촉 을 통한 간접 전파 · 주사기를 통한 감염이나 혈액제제를 통한 감염	
잠복기	15~50일(평균 28일)	15~64일(평균 40일)
치료	· 바이러스 치료제 없어 대증 요법* · 간질환이 없던 건강한 사람이 급격한 간손상이 일어날 경우 또는 구토로 탈수된 환자는 입원치료 필요	
환자관리	· 유증상자 중 스스로 개인위생을 관리할 수 없는 환자(영유아, 고령자, 중증질환자 등)는 황달 발생 후 7일간 격리 · 종사자**는 황달 발생 후 7일간 업무 제한(무증상 종사자는 PCR 1회 음성 확인 후 업무 복귀 가능)	· 증상발생 후 14일까지는 다른 사람과 접촉 피함 · 접촉주의 시행 권고 · 황달, 간수치 상승 등 증상 나타날 경우 의료기관 진료 필요
접촉자 관리	· 일상접촉자***, 성접촉자를 대상으로 마지막 노출 가능시점부터 50일까지 발병여부를 감시 및 노출 후 2주 이내 예방접종 또는 면역글로불린 투여	· 마지막 노출가능 시점부터 64일간 발병 여부 감시 및 증상 시 진단검사 실시
예방	· 예방접종 대상 : 12~23개월의 모든 소아, A형간염 바이러스의 감염위험이 높거나, 면역저하자 등 · 예방수칙 6가지	· A형간염과 달리 예방접종 없음 · 올바른 손씻기 · 설사 증상이 있는 경우 음식 조리 금지 · 음식 익혀먹기, 물 끓여 마시기

*대증요법 : 환자의 증상에 따라 대처하는 치료법

**종사자 : 보육시설·요양시설, 의료기관, 집단급식소·식품접객업소 종사자

***일상접촉자 : 환자와 화장실을 함께 사용한 가족, 간병인, 병실 내 다른 환자, 환자와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접촉한 종사자

▶ 예방수칙 6가지

1

안전성이 확신되지 않은 **조개전** 섭취하지 않기



2

조개류 익혀먹고 안전한 물 마시기



3

요리전, 식사전, 용변 후 **비누로 30초 이상** 손씻기



4

20대~40대*는 예방접종 받기

*1985~2005년생은 항체검사를 실시하여 접종



5

최근 **2주 이내**에 A형간염 환자와 접촉한 사람은 예방접종 받기



6

채소나 과일은 **깨끗이 씻어 껍질 벗겨** 먹기



감염병 정보(바이러스 감염-B·C형간염)

	B형간염	C형간염
정의	B형간염 바이러스감염에 의한 감염 질환으로, 만성 B형간염으로 진행될 경우 수십 년 후에 4명 중 1명은 간경화나 간세포암 같은 심각한 질병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.	C형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질환으로, 주로 50대 이상의 연령대에서 많이 발생하고 정기검진을 통한 조기발견이 중요한 질환이다.
주요증상	· 급성 B형간염 - 황달 · 흑뇨 · 식욕부진 · 오심 · 근육통 · 심한 피로 · 우상복부 압통 등이 나타나나 무증상 감염도 가능 · 만성 B형간염 - 피로, 전신권태, 지속적인 또는 간헐적인 황달, 식욕부진 등 - 합병증 : 만성 간염, 간경변증, 간부전, 간세포암 등	· 급성 C형간염 - 드물게 감기 몸살 증세, 피로, 오심, 식욕부진, 우상복부 불쾌감 등의 비특이적 증상 발생 · 만성 C형간염 - 대부분 무증상, 일부 환자에게서 피로, 오심, 근육통, 관절통, 체중감소 등의 증상 발생 - 만성간염, 5~25%는 간기능이 저하(간경변증) 되고, 그중 1~4%는 간암 발생
진단	· 검체(혈액)에서 특이 항원(HBsAg) 및 특이 항체(IgM anti-HBc) 검출	· 검체(혈액)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
전파경로	· 혈액매개 전파 · 성 접촉을 통한 전파 · 주사기 공동 사용 · 모자간 수직 감염 · 손톱깎이, 면도기 등 위생용품의 공동 사용	
잠복기	· 45-160일(평균 120일)	· 2주-6개월(평균 6-10주)
치료	· 급성 B형간염 : 안정, 고영양 식이 등 대증 요법 · 만성 B형간염 : 안정, 식이요법, 항바이러스제 치료 등	· 급성 C형간염 : 안정, 고단백 식이요법 · 만성 C형간염 : 항바이러스제 치료
환자관리	· 별도 격리 불필요 · 혈액 및 체액 노출 예방을 위한 표준주의 준수	
노출자 관리	· 감염자의 B형간염 표면항원(HBsAg)상태, 노출자의 백신 접종력, 노출자의 B형간염 표면항체(anti-HBs) 상태에 따라 면역글로불린 투여 및 백신 접종 시행	· 노출 후 3회 검사 - (노출 즉시) HCV 항체 검사, 혈청 ALT 검사 - (노출 후 4~6주)항체 음성시 HCV RNA 검사를 시행 - (노출 후 4~6개월) HCV 항체검사, 혈청 ALT 검사 시행
	· 주사침 자상 후 처치법 - 찔린 부위를 눌러 피를 짜내고, 흐르는 물에 30~60초간 씻기 - 점막(눈,코,입) 노출 시 물이나 생리식염수로 세척	

	B형간염	C형간염
예방	· 모든 신생아 및 영유아, 과거 B형간염의 감염 증거와 백신 접종력이 없는 소아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예방 접종 시행 (HBsAb 음성 종사자는 근무 전 예방접종 권고)	· B형간염과 달리 예방접종 없음 혈액 및 체액 노출 예방을 위한 감염예방수칙 준수
	· 의료기관 표준주의 준수 - 일회용 의료기구 재사용 금지 - 재사용 의료기구의 적절한 재처리 (소독, 멸균 등) - 안전한 주사 실무 준수(일회용 바이알 다회 사용 금지 등) · C형간염에 감염된 사람의 칫솔, 구강위생용품, 면도기, 손톱깎이 등 피부에 상처를 줄 수 있는 도구는 개별 사용 · 문신, 피어싱 등 무면허 의료시술을 받지 않음 · 혈액 및 혈액제제 관리(노출 위험 시 보호구 착용-장갑, 가운, 고글 등) · 주사기 안전사용, 안전한 성관계 등	

▶ C형간염 확진 검사비 지원 사업

- 질병관리청에서 국가건강검진(56세) 결과 C형간염 항체 양성 판정을 받은 분들을 대상으로 확진검사비 지원 중으로 **가까운 의료기관(의원, 병원만 해당, (상급)종합병원 제외)에 방문**하여 확진 검사 받으신 후, 진료비 상세내역을 첨부하여 **보건소 직접 방문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(www.gov.kr) 내 보조금 24**를 통해 신청 (**최초 1회에 한하여 진찰료와 확진검사비 전액을 지원**)
- 신청기한 : 국가건강검진 수검 다음해 3월 31일까지

▶ 소독방법

소독부분	소독방법 (다음 페이지 그림 참고)
일상적인 환경소독	낮은 수준의 소독제(염소0.1%(1000ppm))를 이용하여 최소 1분이상 접촉 후 닦아내기, 단 자주 접촉하는 표면(손잡이, 변기, 수도꼭지, 침대, 테이블 등)은 빈번히 소독하기
다량의(10ml이상) 혈액·체액	흡수성 있는 티슈나 일회용 타올로 흡수시켜 방수 비닐에 넣어 폐기, 오염된 부위는 중간 수준의 소독제(염소0.5%(5000ppm))를 최소 1분이상 접촉 후 닦아내기
린넨류 (옷, 침구 등)	가급적 70°C이상(최소 60°C이상)의 온도에서 세탁 후, 직사광선에 말리는 것을 권장, 불가능할 경우 소독제(염소 150ppm)를 이용하여 마지막 행굼 추가(최소 5분)

▶ 환자 혈액·체액의 제거 및 소독

락스 소독 전에는 꼭 환기 필수, 보호구 착용(앞치마, 고무장갑, 마스크)해주세요!

1) 페트병을 이용하여 간단한 소독액을 만듭니다.

준비물

- 염소계 표백제
- 500ml 페트병(잘 씻고 건조한 병), 계량컵
- 종이타월
- 쓰레기봉투(버리기 쉽도록 쓰레기통에 씌워놓기)
- 일회용 고무장갑
- 마스크 및 앞치마 등(감염방지용)



2) 구토물 또는 분변을 처리합니다. (시판용 락스를 사용하는 경우)

① 0.1%(1000ppm)-0.5%(5000ppm)농도의 소독액을 만듭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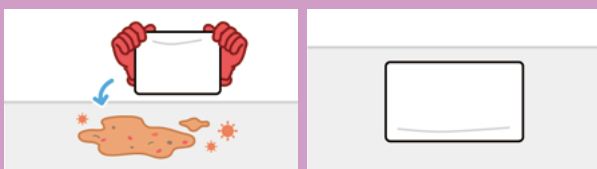


500ml 페트병에 락스 10ml(0.1%) 또는 락스 50ml(5%)를 붓는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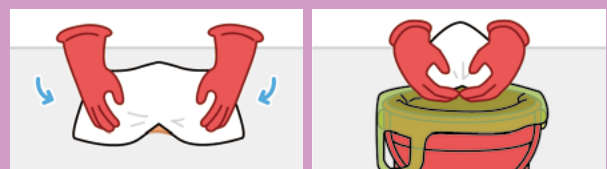


나머지는 찬물(490ml 또는 450ml)을 더해 총 500ml를 만들어 페트병을 채운 후 뚜껑을 닫아 잘 흔들어 섞는다.

② 구토물이나 분변을 치워 비닐봉지에 담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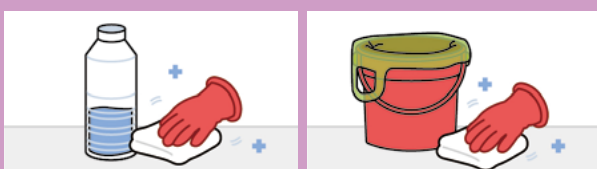


소독액을 적신 종이타월로 구토물 등을 닦는다.



뒤어낸 면을 덮어가면서 담아 제거한 후 쓰레기 봉투에 담는다.

③ 구토물 등이 있던 곳과 주변을 소독합니다.



소독약을 적신 종이타월로 수차례 닦은 후 물로도 수차례 닦는다.



사용한 종이타월과 장갑도 쓰레기봉투에 담아 소독액을 뿌린 후 밀폐시켜 버린다.

3) 처리 후에는 비누를 이용하여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를 합니다.